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2. 24. / (총 17매)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외협력팀	팀 장 담 당 자	손 영 래 주 김 민 주	전 화	044-202-3803 044-202-3808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김 기 남 철 양 명 철	전 화	044-202-2420 044-202-2404
중앙사고수습본부 자원관리3팀	팀 장 담 당 자	오 창 현 준 고 혁 준	전 화	044-202-2897 044-202-3727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연 구 관	조 훈 희 경 박 수 경	전 화	044-203-6729 044-203-64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대구·경북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우한·일본 귀국 국민 생활 현황 -

- 오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어제(2월 23일)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방역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역별 병상·인력 확보 및 단계별 활용 계획 ▲새학기 유·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보완 조치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1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발령

- 어제(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여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는 현재는 특정 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확산되는 초기 단계이나, 전파 속도를 감안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직도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고, 2차장은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전략은 해외유입 차단, 환자 발견과 역학조사를 통한 접촉자 격리 등 봉쇄 정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확산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강화된 두 방향 전략을 병행하여 대응하게 된다.
- 정부는 ‘심각’ 단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대응조치를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 예를 들어,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한 ▲집단행사 개최 여부, ▲다중밀집시설의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조치와, ▲학교·기업·공공·민간단체의 복무·환경·활동 등의 조정과 같은 보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폭넓은 논의와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 아울러, 우선 대구 지역 거주자 및 대구지역을 방문한 타 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신속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정부는 좁은 실내 공간에서 개최되는 행사나 다중이 밀집하는 행사는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 사업주의 경우에는 진단서 없이도 병가 인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향후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례 없이 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대구·경북지역 방역 조치 및 지원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 경북 지역 등의 확진 환자 증가세를 감안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 2월 24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446명이다. 확진 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접촉자 9,681명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 2월 24일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에서 156개 병상을 우선 확보하고, 대구 의료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2월 21일) 입원해 있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전원 조치 하는 등 2월 말까지 453개 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이후에도 병상이 부족할 경우 대구 소재 공공병원(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인근 지역 공공병원(상주, 영주적십자병원, 국립마산병원)도 추가 지정하였다. 또한 음압치료병상이 필요하면 국군대전병원 등을 활용한다.

- 공공병원 의료진, 군(군의원·간호사) 의료진, 공보의 등 공공 의료 인력 162명과 의료진 보호장구·진단검사장비 등도 지원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월 23일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지역 의료현장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의 조치 경과를 발표하였다.

○ 우선 대구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월 21일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2월 22일 공중보건 의사 51명을 즉시 지원하였고, 2월 23일 간호사 45명을 대구 동산병원으로 지원한다.

○ 또한, 대구 지역 병상 추가확보를 위하여 현재 전담병원인 대구의료원 및 대구동산병원에 대한 소개(疏開) 조치가 진행 중이며, 2월 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 2개 병원 253병상 소개 조치 완료 (2.23)

- 확진자가 지속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대구·경북지역 국공립 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개 명령하였다. (2월 23일)

* 국립마산병원, 대구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

○ 또한, 의료물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음압키트 긴급 수요에 대해 타 지역의 것을 활용하여 대구·경북에서 사용토록 조치하였다.

○ 확진자 발생 이후 신속한 응급실 진료 정상화를 위하여 응급실 소독 및 재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보호장구 착용 등을 통해 확진 환자에 노출되지 않고 선제적으로 조치하도록 안내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구·경북지역의 확진자 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위하여 대구시에서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하여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2월 24일 9시 기준 경북 지역의 확진 환자는 총 186명이다.

○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 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 청도대남병원을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해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치료하고, 그 외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송한다.
- 환자가 추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내 4개 감염병전담병원 (안동·포항·김천·울진의료원) 입원환자를 타 기관 전원 조치하여 최대 900개까지 병상을 확보한다.
-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인력 20명,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1명 등이 지원 중이며, 레벨D 등 의료장비도 지원한다.

3 우한 및 일본 귀국 국민 임시생활 현황

□ 지난 2월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하여 진료상담 등 61회, 심리상담 68회, 심리교육방송 12회 및 금연상담 3회 등을 실시하였다.

○ 건강상의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던 8개월 영아는 무사히 퇴원하여 다시 임시생활시설에 복귀하여 지내고 있다.

□ 아울러 2월 19일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에 입소하여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 일본 귀국 국민 등 7명*도 특이사항 없이 입소 생활을 하고 있다.

* 우리 국민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어려운 상황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 유·초·중등학교 새학기 개학 연기

□ 교육부(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하였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휴업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번 결정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거쳤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항

○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하여 수업 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의 10분의 1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 법정 수업일수 : 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

○ 교육부는 향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개학 연기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 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

○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 (점검내용) 방역물품 비치, 예방수칙 게시, 예방교육 및 시설 내 소독여부 등
- 마지막으로 학교 밖 교육시설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학부모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5 개인정보 유출·확산 엄중 대처

- 최근 확진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확산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한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 유출·확산은 확진자 등의 자진 신고를 방해하여 방역 체계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행위로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 * 개인정보보호법 7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께서 개인정보 유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더이상 확진자 관련 개인정보가 유출·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 붙임 >
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3.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4.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5.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6. 감염병 예방수칙

붙임1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우) 04520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13층 / 전화 02)734-9321~3 전송 02)738-1003 / www.journalist.or.kr

코로나19 보도 준칙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매체와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해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의견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5장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1. 언론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여러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한다.

가. 출신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 자격, 국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도록 힘쓴다.

나.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④ (차별과 편견의 금지) 언론인은 지역간, 계층간, 성별간, 인종간, 종교간 갈등을 야기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을 차별해서도 안된다. 언론인은 아울러 장애인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제2조 취재준칙

② (재난 등 취재) 기자는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③ (병원 등 취재) 기자는 병원, 요양소, 보건소 등을 취재할 때 신분을 밝혀야 하며 입원실을 포함한 비공개지역을 허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기자는 허가 없이 환자를 상대로 취재하거나 촬영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의 치료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

⑥ (재난보도) 재난이나 대형사건 등을 보도할 때 상황과 상관없는 흥미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 등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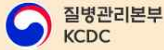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 동거인 생활수칙



2020.2.12.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하기**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불가피할 경우,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건강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 기침 후 손씻기·손소독 하기

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모니터링 방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
- 보건소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 감염 증상 알려주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발열(37.5°C 이상)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폐렴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 방문 제한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구분하여 사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



테이블 위, 문 손잡이, 욕실기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 ✓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 ✓ 폐렴

붙임4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포스터

질병관리본부 KCDC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당신의 여행력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당당히**
말해주세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진료시
의사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감염병을 신속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꼭꼭꼭!!!



* 해외여행력이란?
여행, 출장 등의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한 경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해외감염병NOW www.해외감염병now.kr

붙임5

감염병 예방수칙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